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8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1면	60개국 3213명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서 자웅 겨룬다	1
江原日報	03면	“도의원-정책지원관 소통 의정 효율성 높여”	1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교육 “라떼”로 돌아가자	2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반복되는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법·제도 개선 ...	3
강원도민일보	02면	도 "소양강 녹조 상수원 오염 우려할 상황 아냐"	4
江原日報	02면	청정 강원 농특산물 수원서 맛본다	5
강원도민일보	01면	'경제성 낮다' 삼척~강릉고속화철도 비상	5
 KBS 춘천	온라인	부실한 '무더위 쉼터' 일제 점검... '안전디딤돌 앱'도 정비	6
 KBS 춘천		[여기는 강릉] 강릉시, 장애인 시설 지원 축소 추진...방만 ...	7
강원도민일보	08면	춘천 명동 '야시장 개장' 상인 이견 결국 무산	9
江原日報	12면	세계 선도 '천연물 바이오도시 강릉' 뜬다	9
강원도민일보	05면	고성에 305mm 물폭탄...논·도로 잠기고 주민대피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올여름 3대 위기 잘 넘기자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각지대인가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도, 지역인재 떠나는데 비전을 말할 수 있나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예고된 재해 태풍 '카눈', 이젠 철저한 대비가 중요	14

강원도민일보

60개국 3213명 '태권도 중심도시' 춘천시 자웅 겨룬다

춘천코리아오픈국제대회 개막
역대 최대규모 참가 14일까지
품새·겨루기·격파 종목 경연

역대 최대 규모의 2023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7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막을 알리는 축포를 쏘았다. 'I love Taekwondo, Let's go to Chuncheon'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춘천코리아오픈대회 개막식이 이날 호반체육관에서 선수단 및 관중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태권갈라쇼, 2부 개회식으로 나누어 열린 이번 개막식에는 육동한 춘천시 시장,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 회장, 이동섭 국가원 원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회의장,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장광선 육군 2군단장,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



2023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이 7일 호반체육관에서 열려 기수단이 참가선수단 국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김정호

청 교육감,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서정강 세계태권도연맹(WT) 사무총장, 수프라미 굽타사 태국 국민체육진흥재단 총괄이사, 디미타르 미하일로브 불가리아 태권도연맹 부회장, 다토스리 다투크 라우 쿵 차 말레이시아 백자, 이승완 태권도원로회의장, 김세혁 국기원 연수원장, 양희구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 경민현 강원도민

일보 부사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김중규 춘천MBC사장, 김동욱 강원CBS 대표, 박종원 KBS춘천방송 총국장을 비롯해 시의원, 도의원, 각 시·도 태권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했다. 양진방 회장은 영어로 준비한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와 춘천

시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열지 못했을 것"이라며 "현재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날씨를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동한 시장은 축사 통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 우선 협상 대상자이며 내년엔 열리는 세계주니어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도시인 춘천은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도시"라며 "춘천이 세계태권도의 중심에 서기까지 바로 이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있었다. 20년이 넘게 이 대회를 열면서 쌓인 경험과 저력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30만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영어로 "태권도는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가 됐다. 60개국에서 3000여명의 선수들이 태권도를 하기 위해 춘천으로 왔다"며 "요새 날씨가 매우 더운데 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에어컨 시스템을 준비했다. 모두 대회에만 집중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세계 60개국 3213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품새, 겨루기, 격파 등 3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룬다. 2000년 첫 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국제대회인 만큼 외국인 참가자가 전체 참가자의 48% (1545명)에 달한다.
심예섭 yeess@kado.net

江原日報

“도의원-정책지원관 소통 의정 효율성 높여”

도의회 업무 혼선 해소 나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4명 체제로 완성된 정책지원관의 업무 혼선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의정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6월 6명, 올해 1월 12명에 이어 지난 1일 최종 6명의 채용을 마치며 정원 24명을 모두 확보한 도의회는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까지 완료했다.

이들에게는 조례 제정과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각종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의 취합·분석 지원 등의 업무가 주어졌다. 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과 의원

의 도정 질의서 작성,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자료 작성 등이 주요 업무다.

도의회는 이 같은 명시적 업무 이외에 업무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취지를 살린다는 목표다.

지역구가 넓어 이동거리가 긴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정책지원관이 부득이하게 행사에 대신 참석하는 등의 원 보좌관과 같은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경우,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해하는 과정을 밟게 한다는 것이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은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무현기자

江原日報

2023 08 08 ()

19

라떼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어린 시절, 담임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다. 가난했던 터라 선생님께 대접할 음식도 마땅치 않았지만 부모님은 정성을 다하셨

다. 선생님은 나의 교육과 장래에 대해 부모님과 마음을 터놓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다.

라떼는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동창생들과 예전 선생님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 이제 그 선생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우리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남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들을 빛바랜 사진첩처럼 다시 꺼내 보곤 한다.

라떼는 이런 게 진정한 사제시간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해 지금껏 단 한 번도 회의(懷疑)한 적이 없다. 그런 관계가 '올바른 인간관계'이고, 나는 '제대로 잘 배웠다'고 자부심도 느끼며 살아왔다. 부모님은 혹여 내가 잘못이라도 해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면 "더 혼내고, 더 때려주세요"라고 하셨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율곡 이이 선생은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한 몸처럼 여겨 스승을 아버지와 같이 공경해야 한다고 했다. 스승을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둬으로써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강원포럼

박길선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다문화연구회장



감사를 강조한 것이다. 부모는 나를 세상에 있게 해준 은인이고, 스승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알려주는 은인이기 때문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방법은 달라도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까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고 이끌어 준다는 면에서 스승은 부모와 닮아 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나를 혼내는 선생님의

교육 "라떼"로 돌아가자

마음이 부모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소 마음이 아프더라도 선생님을 믿고 지지해 줬을 것이다.

사람의 인성, 성품, 지능은 부모로부터 유전되고, 두 살 이전 완성되며 취학 이전에 거의 완결된다. 따라서 취학 이후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거의 부모의 탓이다.

인간의 뇌신경은 절반 정도가 성장 과정에서 죽는다. 우리의 뇌가 스스로 자신의 뇌신경을 죽인다. '내가 자주 하는 행동, 내가 좋아하는 행동, 나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행동'을 더

잘하도록 그 행동과 관련된 뇌신경은 살려두고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버린다. 뇌도 잘하는 것을 위해 '특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가정에서 이뤄진다. 인성교육의 발판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아이가 선생님을 때리는 상상 밖의 행동, 잘못이 있는 아이를 바로잡고자 꾸짖으면 부모가 선생님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안하무인적 행위,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어찌 부끄러운 줄 모를까?

교육은 엄마 품에서 시작해 밥상머리에서 끝난다. 특히 인성교육은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교습하고 교정하고 인도하는 자리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교편(敎鞭·회초리)을 잡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사라졌다. 세상사를 반영하는 것이 언어이니 요즘 선생님은 교편은커녕 학생, 학부모 눈치 보기 바쁘다. 이게 올바른 세상인가 싶다. 이래서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의 장래가 올바로 갈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스승을 공경하고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교육개혁은 인성개혁, 의식개혁부터 시작해야겠다 싶다. 도덕재무장운동이라도 펼쳐야 하는가?

강원도민일보

2023 08 08 ()
19

반복되는 휴가철 반려동물 유기, 법·제도 개선 시급

의정칼럼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해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 유기동물 수가 급증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 반려동물 등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느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 총 5442건, 2022년에 총 5497건으로 지난 2년간 1만939건이 발생했다. 유기 동물(유기견 기준) 최다 발생월은 7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6~8월에 집중돼 있다. 춘천시만 보더라도 2021~2022년 유기 동물 발생 건수가 1093건에 이르고, 월별 유기 현황을 보면 휴가철인 8월의 발생비율이 12.4%로 가장 높다. 반려동물 가구는 수년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보호 인식 개선이나 관련 법·제도는 아직 미흡한 것이다.

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에 의거해 처벌된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여전히 솥방망이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 유기동물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만큼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해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의 무화가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

올해 6월까지 도내 동물등록 기준 반려동물 현황은 약 10만8343마리(개·고양이에 한함)가 반려동물로 등록돼 있다. 등록 소유자는 약 7만5900명 수준이다. 도내 반려동물 양육가구(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가 11만3644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도 차원에서도 동물등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등록비용 지원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또,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용어의 사용부터 달라져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건축전염병 예방법' 등에서는 아직도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애완동물'의 '완'은 희롱할 완(玩)이다.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현행법부터 일관되게 개정돼야 한다.

공공시설이나 공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에 있어서도 '동물보호법'상 맹견 출입금지 장소, 조례로 규정하는 특정 지역·장소, '수목

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수목원 등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만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교육부 고시인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서도 반려동물의 출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관련 법령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출입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 장소 외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장소나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출입안내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과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 시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들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8 ()
02

도 “소양강 녹조 상수원 오염 우려할 상황 아냐”

**확산 저지 조류 제거·차단막 설치
정확한 원인 규명·대책 수립 약속**

소양강 상류 일대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일 “녹조 추가 확산은 막았다. 상수원 오염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7일 강원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막을 세 곳에 이미 설치했다. 인제군 38대교 북단쪽에 1·2차 차단막을 양구대교 상류쪽에 3차 차단막을 구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추가 확산은 막았다고 봐도 된다. 일시적으로 녹조가 없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오염을 우려할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녹조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

고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원주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양구군, 인제군 등 5개 기관과 함께 조류 방제에 나섰다.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소양강 상류에 차단선, 조류 제거선, 중장비, 제거인력 등을 동원해 조류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선은 인제군 38대교 북단쪽에 두 곳, 양구대교 상류쪽에 한 곳이 설치됐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 강원도 국비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오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막판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김택형

청정 강원 농특산물 수원서 맛본다

“찾아가는 농특산물 대제전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제11회 강원푸드박람회 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일보사, (사)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가 주최하고 강원푸드박람회조직위원회와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강원푸드박람회 24~27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개막 도·보·강원자치도민회중앙회 공동 주최로 진행

이번 박람회 개막식은 24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강원 식품을 홍보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참여 업체들은 판로 개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바이어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특례시 지정을 받은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120만 수원시민을 비롯해 경기도민, 서울시민들에게 청정 강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2년 연속 박람회 개장 첫날 일부 품목이 품절되는 등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강원도 식품홍보관은 물론 강원도 내에서의 삶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게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정보관, 강원도 내 18개 시·군 관광지와 축제 등을 알리는 방방곡곡 홍보관도 운영한다.

올해는 강원일보사가 회장사로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회원사인 경인일보와 전북일보가 같은 공간에서 푸드박람회를 함께 개최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관련 업체 및 시·군의 홍보관 참가 문의는 제11회 강원푸드박람회 사무국((02)3785-3905)으로 하면 된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경제성 낮다’ 삼척~강릉고속화철도 비상

KDI 비용대비 편익비율 지수 사전타당성조사 0.65보다 낮을듯 적은 인구 영향 결과 저조 불가피 균형발전·정책 기준 강조 예정



속보=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철도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본지 2월 10일자 4면)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비용대비 편익비율(B/C) 지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지며 비상이 걸렸다.

7일 본지 취재결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로 예정된 발표를 앞두고 이달 말 중간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이 노선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65대로 산

출, 비교적 높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KDI의 검토결과 국토부와는 달리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삼척시는 경제성 외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정성적, 정책적 차원에서 사업타당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선 경제성 편익을 보다 긍정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획재정부 예타 지침에 따른 예타 시

행 기관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때문에(경제성 편익 결과) 조금 우려된다”고 했다.

도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보안을 위해 이르면 내달, 늦으면 오는 10월 증보완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는 강릉시·삼척시 등과 함께 지역대단위 사업 및 개발 계획 등을 공유·보완하며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별 현안 사업의 물동량·통행량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 단위를 육박하는데 강원 지역의 경우 인구가 적어 소요 예산 대비 경제성 편익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평가 기준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동해선 고속화 철도는 삼척역~강릉 안인 일대 45.8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3357억원으로 추산된다. 김덕형

2023 08 07 ()

KBS 춘천

부실한 '무더위 쉼터' 일제 점검... '안전디딤돌 앱'도 정비



[앵커]

KBS는 지난주, 폭염 속 '무더위쉼터'와 '안전디딤돌 앱'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연속 기획 보도로 전해주었습니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가 부실한 '무더위쉼터'를 일제 점검하고 '안전디딤돌 앱' 정비에 나섰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더위쉼터 안내 지도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강원도 고성에 있어야 할 쉼터가 북한 금강읍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제 서야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KBS가 보도한 안전디딤돌 앱상의 강원도 내 무더위 쉼터 안내 지도 오류 228건에 대해 강원도 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강석길/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이 좀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 저희가 다 정비 완료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실시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무더위쉼터 1,500여 곳 전체에 대한 현지 실사와 정비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에 잘못 부착돼 있던 무더위쉼터 안내판도 지금은 모두 이렇게 떼어져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의 개수와 이용 시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주말과 휴일에도 문을 열고,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쉼터엔 냉방 용품도 공급됩니다.

[양원모/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 : "시군에 또 공공기관들, 공공시설을 또 무더위쉼터로 개방하는 조치를 했고요. 추가로 계속 오류 사항이 있는지 계속 확인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무더위 쉼터가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양대성/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기후재난대응과장 : "보도를 통해 제기되었던 무더위 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히,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무더위쉼터 운영 상황을 반영하는 등 쉼터의 내실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이장주

임서영

2023 08 07 ()

KBS 춘천

[여기는 강릉] 강릉시, 장애인 시설 지원 축소 추진...방만 경영?



[앵커]

강릉시가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 인력과 예산 지원 기준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강릉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종사자들의 처우가 악화는 물론 장애인들에게 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농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강릉시수어통역센터입니다.

전문 수어통역사 5명이 재난재해 관련 브리핑 지원부터 개인적인 통역 의뢰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통역사 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릉시가 방만한 운영 등을 이유로 일부 직원의 임금 삭감과 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선미/강릉시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 : "정원을 줄여라 한 사람이 그만두면 더 이상 뽑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연감소가 되면, 더 이상 뽑지 말라고 하신 거는 (인원을) 줄인다는 내용이거든요."]

강릉시의 이번 조치는 수어통역센터를 포함해 지역 장애인 관련 시설 3곳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안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처우에 기존 지원마저 축소되면서, 일부 직원들의 이탈까지 예상된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경희/한국장애인부모회 강릉시지부장 :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내 아이가 재밌고 즐겁고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만약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강릉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급여 인상과 인력 증원 등이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진행됐다고,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민호/강릉시 복지민원국장 : "운영 및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시설 간 형평성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수년간 강릉시와 협의를 통해 시설을 운영해온 단체들은 강릉시의 돌변한 태도가 당황스럽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충분한 소통이 빠진 무리한 행정이 자칫 장애인 복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강릉솔향수목원, 야간서바이벌 체험프로그램 개최

강릉솔향수목원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 서바이벌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야간 서바이벌 체험프로그램 '달빛보고 나랑 놀래'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며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수목원 탐방과 물총 놀이, 달맞이 놀이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안전한 활동을 위해 2017년생부터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설

동해시가 자원 절약과 재정 절감을 위해 폐기물 종합단지 안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을 건설합니다.

이 시설은 공사장 폐기물을 가연물과 불연물로 분리해, 가연물을 연료화하는 시설로 내년 1월 착공해 2025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해당 시설이 운영되면, 재활용률이 기존 대비 17.6% 증가한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FC, 리그 15경기 연속 무승...리그 최하위

강원FC는 어제(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박상혁 선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종료 직전 상대에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습니다.

강원FC는 승점 17점을 기록하며 수원삼성에 승점 1점을 뒤진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강원FC는 오는 12일 저녁 7시 30분,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홈경기를 치릅니다.

초등생 대상 성매매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아동·청소년 여성 인권 관련 38개 단체는 오늘(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성매매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성범죄 가해자 6명 전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2심에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2023 08 08 ()
08

강원도민일보

춘천 명동 '야시장 개장' 상인 이견 결국 무산

도로점용 허가 전체 동의 필요
일각서 쓰레기·소음 우려 반대
시, 공모 예산 3억원 회수 예정
강원대 후문 야시장 협의 한창

속보=춘천 명동상점가 야시장 개장을 두고 일대 상인들의 의견 차이가 지속(본지 6월 1일자 11면), 야시장 개장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 두 달 간 명동상점가 일대 상인들의 의견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야시장을 개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책정된 예산 3억원도 회수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올해 초 특성화 야시장 조성사업을 공모해 명동상점가와 온의동 풍물시장을 선정했다. 명동상점가에 3억원, 풍물시장에 1억원,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시비 4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야시장 개장을 통해 침체된 명동 구도심 상점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춘천시는 기대했다. 명동상인회 역시 다문화가정을 섬기며 세계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는 야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주제로 잡고 플라마켓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러나 명동상점가 일부 상인이 음

식물 쓰레기 등의 처리 문제와 소음 우려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 명동상점가 야시장 개장도 무산됐다.
김대봉 명동상인회장은 "상인 대부분이 야시장 개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소수 반대 의견으로 개장도 못하게 됐다"며 "반대하는 사람 한 명 없이 어떻게 상인 100%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시는 야시장을 조성하려는 일대가 지목상 도로로 돼 있어 도로점용 허가가 반드시 필요해 이는 100%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강원대 후문 야시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대 상인과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율이 한창이다. 강원대 후문은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 야시장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총 2억원을 지원받아 야시장 조성에 나선다. 강원대 후문의 경우 상점가 뿐만 아니라 원룸이 밀집해 있어 거주민들까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야시장을 구성하기 위한 공중화장실이나 매대 보관소 설치 장소도 물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대 후문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 하고 있다"며 "합의 우선돼야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2023 08 08 ()
12

江原日報

세계 선도 '천연물 바이오도시 강릉' 뜬다

산업 플랫폼·기업 유치·혁신생태계 조성 전략 추진
시 "미래첨단산업 중심도시 발돋움 경쟁력 확보"

[강릉] 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앞당겨 '세계를 선도하는 천연물 바이오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중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등 시가 보유한 최대 강점인 천연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천연물 바이오 산업 플랫폼 구축, 각종 정책·기반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공간·제도 기반 조성 등에 따른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천연소재 전 주기 표준화, 천연 식품첨가물 소재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지역 학·연 플랫폼 구축, 천연물 바이오 원료 재배단지 및 산업화 R&D 센터 등을 조성해 소재 개발에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

할 수 있는 산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지정 및 조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핵심 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미래 신산업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

단지의 적기 지정 및 조성이 이루어 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쯤 진행될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열 시 향만물류과장은 "천연물 바이오 산업을 강릉시만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미래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igjung@

강원도민일보

2023 08 08 ()

05

고성에 305mm 물폭탄...논·도로 잠기고 주민대피

시간당 90mm 내려 침수 24건
석문리 농경지 토사에 휩쓸려
춘천·횡성서 첫 열대야 관측

강원도내 영동 일대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고성(간성)의 누적 강수량이 305.5mm에 달하는 등 '물폭탄'이 쏟아져 영동 지역 피해가 속출했다.

7일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비의 강은 고성(간성) 305.5mm, 양양 167mm, 강릉 92.1mm 등이다. 특히 고성간성은 지난 6일 오후 8시를 전후로 시간당 90mm의 비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하천 범람 우려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시 대피하기도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영동 일대에 쏟아진 비로 고성에서 4명이 대피했으며 사유시설 26곳



7일 물폭탄이 쏟아진 고성 거진읍 석문리의 벼 이삭이 팬 농경지가 침수돼 주민들이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 공공시설 27곳이 피해를 입었다. 건물과 마당 등 침수가 속출해 24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건물과 도로의 배수지원이 8건이었다.

많은 비가 내린 고성의 경우 도로 통제도 이어졌다. 삼포해수욕장 해안도와 현내면 초도리 해안도, 간성읍 남천고 하상도로 3곳의 도로가 통제됐다. 고성 석문리, 송강리 경로당에 각 1명, 명파리 경로당에 2명이 대피했으며 인

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석문리 경로당에 대피했던 주민 A씨는 "집 주위로 토사와 물이 덮쳐 군청 직원의 도움으로 경로당으로 대피했다"며 "비 내리는 소리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간성읍 해상리 주민 B씨는 "물폭탄으로 마을내 농경지 논둑이 무너지고 토사가 휩쓸려 내

려와 추수를 앞둔 벼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당장 마을이 호우로 피해를 입자 주민들은 복구부터 걱정이다. 농민들이 대다수인 석문리의 경우 벼 이삭이 팬 농경지가 토사에 휩쓸리고 침식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거진읍 초계리 황철순 이장은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석문리에서 초계리로 연결되는 남강로 아스팔트 하부 지면이 침식된 곳이 많

다"며 "차후 도로갇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도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실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89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많은 비가 내린 영동 지역과 대조적으로 영서 일부 지역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횡성과 삼척 각 26도, 강릉 25.8도, 동해 25.6도, 춘천 25.4도, 양양 25.1도, 속초 25도를 기록했다. 이 중 춘천과 횡성의 경우에는 올해 첫 열대야로 확인됐다. 8일에는 도 전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겠다.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강원도는 오는 9일 영동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10일 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김정호·신재훈·지산

강원도민일보

2023 08 08 ()
/ 19

올여름 3대 위기 잘 넘기자

-태풍 '카눈'·온열 질환·코로나19관리 만전을

8월 20일을 전후해 동해안 해수욕장이 잇따라 폐장하는 등 여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찜통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 온열 환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까지 확산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10일부터 태풍 카눈이 국내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보돼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피서철, 위기를 극복해 안전한 여름을 나기를 바랍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폭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내 곳곳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강릉의 밤사이 최저기온은 30.7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일 낮 최고 기온도 38.4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일 기준 강원도내 온열 질환자는 6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도내 온열질환자 42명과 비교하면 1.6배 더 많습니다. 올여름 온열 환자는 전국적으로 1500명을 넘어섰고, 온열 추정 사망자는 2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태풍 소식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0일 오전 9시 부산 남서

쪽 90km 해상에 이를 카눈의 강도는 '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순간 풍속 예상치는 경상해안 40% 안팎, 강원 영동·경상 내륙·제주 25~35%, 경기 남동 내륙·강원 영서·충남 동부·충북·전라 동부 20~30%, 수도권·충남 서부·전라 서부 15~25%입니다. 강풍 취약지와 피서지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6월 넷째 주 전국적으로 1만 7000명대에 머물던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가 매주 늘어 7월 넷째 주에는 4만 500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7월 26일엔 5만 7220명으로 치솟았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증가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월 넷째 주 110명에서 7월 넷째 주엔 170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는 58명에서 88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관광객이 모이는 피서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과 코로나19·재해 피해는 대부분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행정 당국의 주의 사항에 귀를 기울여 일상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자체 등 행정 당국도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마땅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08 ()

/ 19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각지대인가

-강원 '산사' 전무, 태실유적3개도 협력 빠져

유서 깊은 사찰을 보유한 강원지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에 포함되지 못한 데 이어 '태실' 추진에서도 제외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정책 역량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경기·경북·충남 3개도 문화유산부서 과장들은 2022년부터 '조선왕조 태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실무워크숍을 잇따라 갖고 공동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월의 정조대왕 태실과 춘천의 선조대왕 태실 초장지 귀부 석물을 보유한 강원지역으로선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태실은 왕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생긴 태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조성된 유적입니다. 왕실에서는 태를 묻은 뒤 봉분을 조성하고 아기비를 세웁니다. 태실 주인공이 왕으로 등극하면 '가봉'이란 절차를 거쳐 이전과는 다른 외형적인 양식을 갖춘 석물을 조성합니다. 태실문화는 서구는 물론 아시아 주변국에 없는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생명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 등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월의 정조 태실은 판석과 석주, 기단, 중동석, 옥개석 등 여러 측면에서 태실의 양식 변화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춘천 현암리의 선조 태실엔 당대 제작된 전형적인 '귀부' 석물이 있습

니다. 횡성의 치악산 태실은 공민왕 태실지로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장태지입니다. 이밖에 삼척, 양양 등 곳곳에 태실이 산재합니다.

강원도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누락된 전력이 있습니다. 해인사, 불국사 등 세계유산에 이어 통도사·부석사·봉정사·법주사·마곡사·선암사·대흥사 7개 사찰이 한꺼번에 산사로 등재됐지만, 조선왕조실록 사고를 보유한 월정사와 상원사, 신흥사, 고려정원을 간직한 청평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22년 폐사지인 회암사지를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렸습니다. 법천사지·거둔사지·흥법사지가 집중된 원주와 달리 성과를 낸 것이어서 비교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유적 보존의 미를 넘어 브랜드 파워와 경제적 가치를 자랑합니다. 등재 기준에 부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 문화재청, 민간단체, 학회 등과 협력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경기·경북·충남 3개도는 2022년 4월부터 꾸준히 공동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연내에 태실 등재 추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강원도가 산사에 이어 태실 유적마저 기회를 잃는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江原日報

2023 08 08 ()

/ 19

강원도, 지역인재 떠나는데 비전을 말할 수 있나

강원자치도 일자리 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강원자치도 내 기업들은 고급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정작 지역 과학기술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는 인재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과학기술인재 취업이동 특성’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도내 대학에서 공학·자연계열 분야를 졸업한 과학기술인재 중 1만9,734명이 취업했다.

이 중 지역 내에서 취업한 과학기술인재는 5,250명으로 전체의 26.6%에 불과하다. 4명 중 3명은 타 지역에서 취업하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36.6%에도 크게 밀리는 수치다.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지난 몇 년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됐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IMF 구제금융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증가해 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고 이는 일자리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계절적 편차도 심하다.

경제활동의 계절적 변동이 큰 것은 강원자치도 취업 구조가 계절경기에 민감한 농림어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따라서 강원자치도 일자리 여건은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한시적, 일시적 재정 지원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질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강원자치도

는 자치단체를 비롯한 많은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원자치도 일자리 정책은 산업, 고용, 교육·훈련, 지원 인프라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우선은 여러 여건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강원자치도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일자리

그리고 실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내재적 접근과 체감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연고기업이 집

중돼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에도 나서야 할 때다. 농공단지는 공장밀집지역을 넘어 관광이 복합단지로 재탄생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디자인으로 보완해 청년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혁신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일자리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이 강원자치도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이 돼야 한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 속에서 강원자치도형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안된 사업들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사업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5년간 과학기술인재 4명 중 3명 ‘이탈’
일자리 찾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지역 특성 맞는 제조업 육성 등 대책 마련을

江原日報

2023 08 08 ()

/ 19

예고된 재해 태풍 '카눈', 이젠 철저한 대비가 중요

강원지역이 10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9일 새벽 일본 규슈에 상륙해 10일 오후 3시 울릉도 북북동쪽 60km 해상으로 진출할 전망이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카눈은 10일부터 도내 영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카눈은 중심기압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5m(시속 126km)로 강도 등급 '강'을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중'으로 약해지겠지만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9일에서 10일 사이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동지역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7일 오전부터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카눈의 경로가 2020년 발생한 태풍 '하이선'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하이선 북상 당시 동해안 지역에는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으며 초당 40m의 강풍이 불었다.

태풍이라는 대규모 자연재해는 단순한 비교만으로 강도를 예측할 수는 없다. 과거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을 살펴보면 유난히 가을을 앞두고 상륙할 때 피해가 컸다. 이번 태풍도 한반도를 피해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태풍의 반경에 들어갔다. 당장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장마철 극한호우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많은 비와 거센 바람으로 토사가 쏟아지거나 임시 가설물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의 경우 지형적 특성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산사태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 비춰 산사태 가능성에 대한 대비·대응 태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예찰 활동 강화와 철저한 점검으로 태풍 내습에 대비해야 한다.

올여름 장마 때 극한호우로 순식간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던 것을 상기하면 매년 반복되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종전보다는 더 촘촘하고 세밀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규모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태풍과 같은 이미 예고된 자연재해는 대응 태세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태풍에 단 한 명의 인명, 단 한 건의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렸다는 의미다. 지자체 등에서는 빈틈이 없는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